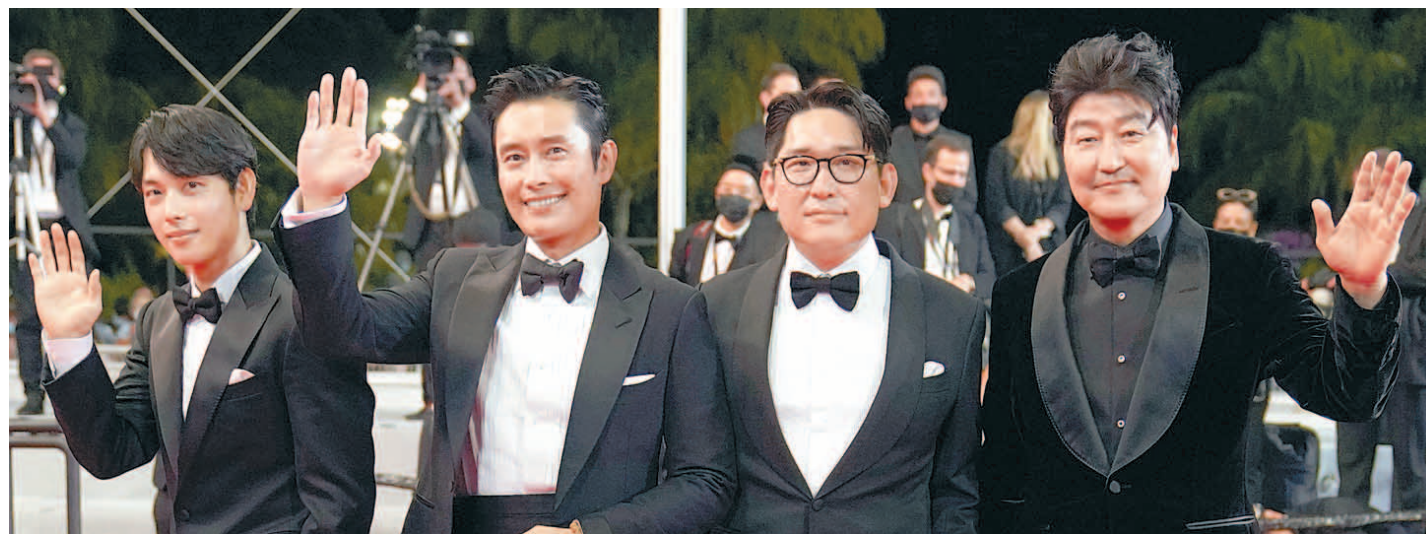


한국영화 위상 빛낸 '칸의 두 남자'

송강호, 경쟁부문 심사·감독상 시상
이병헌은 폐막식 '여우주연상' 호명
함께 주연한 '비상선언' 뜨거운 관심
佛 뒤쿠르노 감독 '티탄' 황금종려상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인 '비상선언'의 주연 임시완·이병헌과 연출자 한재림 감독, 송강호(왼쪽부터)가 17일 오전 5시15분(한국시간) 영화의 공식 상영에 앞서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AP·뉴스시

"한국영화의 얼굴".
세계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칸 국제영화제가 배우 송강호를 이렇게 가리켰다. 영화제는 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칸과 전 세계에서 크게 성공한, '살인의 추억'의 상징"이라고 썼다. 송강호는 이번 영화제 장편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봉준호 감독이 "선언합니다"며 우리말로 영화 축제의 개막을 선언한 7일 개막식에 이어 18일 폐막식에서 심사위원장 스파이크 리 감독 등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폐막식에서 그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로 반갑게 인사한 또 한 명의 한국배우가 있다. 시상자로 무대에 나선 이병헌이다. 한국배우로는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자가 된 이병헌은 넘치는 여유를 과시했다. 그 역시 "한국영화의 얼굴"(the face of Korean cinema)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송강호·이병헌 주연 '비상선언' 호평
송강호는 15일 칸 국제영화제 공식 인터뷰에서 "감독에 대한 믿음, 내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의 끌림"을 작품과 선택의 바탕으로 꼽으면서 "마음과 영혼을 연기에 던지는 걸 좋아한다"고 말

했다. 이어 "이창동·박찬욱·김지운·봉준호 감독"이 배우 경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출 의향에 대해 "지금으론 재능이 없다. 당분간 배우에 집중하고 싶다. 아직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심사위원 송강호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사위원 위촉 자체가 한국영화와 배우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주연작 '비상선언'을 이번 영화제 비경쟁부문에서 선보이며 극찬에 가까운 호평을 받은 것으로도 이어진다.
여객기가 테러의 위기에 빠진 뒤 각기 사연을 지닌 이들이 이에 맞서는 극한의 절박함을 그린 '비상선언'은 17일 오전 공식 상영됐다. "상영시간 2시간30분이는 깜짝할 새 지나가버렸다"(AFP통신),

"경이로운 항공재난영화"(NY옵저버) 등 외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병헌도 찬사를 함께 받았다. '비상선언'으로 호흡을 맞춘 송강호와 임시완, 연출자 한재림 감독과 함께 레드카펫에 올라 환호를 이끌었다. 이어 폐막식에서 "올해 영화제는 내게 매우 특별하다"며 "영화제의 문을 연 봉준호 감독과 심사위원인 송강호는 제 동료이고,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는 저와 성취가 같다"며 영어로 위트를 드러냈다.
●'티탄', 황금종려상...한국영화 '매미' 수상
이병헌은 18일 오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여우주연상 수상자를 호명했다. '더 위스트 퍼슨 인 더 월드'의 레나트 라인스베였다. 송강호도 심사위원 자격

으로 감독상 수상자인 '아네트'의 레오 카락스 감독의 이름을 불렀다.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프랑스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티탄'이 차지했다. 여성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1993년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 감독 이후 28년 만이다. 심사위원대장은 이란의 아스카르 파르하디 감독의 '히어로'와 핀란드의 유호 쿠오스마넨 감독의 '컴퍼트먼트 넘버6'가 함께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니트람'의 케일럽 랜드리존스가 수상했다.
한국영화는 영화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선보이는 시네파운데이션 부문 출품작인 윤대일 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매미'가 2등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워싱턴포스트, K팝의 세계정복 조명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케이팝의 세계적인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케이팝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나'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케이팝의 성공 이유로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포인트 안무와 뮤직비디오, 팬들의 적극적 활동 등을 꼽았다. 그룹 원더걸스의 '텔 미',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등을 거론하며 특정 선율이 반복되는 '후크송'의 매력도 인기의 요인으로 봤다. 국제 수어를 차용해 안무를 만든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등 케이팝의 소셜 미디어상 파워도 꼽았다.

블론 이혹 우효광, 추자현에 사과문



우효광 추자현

연기자 추자현의 남편인 위소우광(우효광)이 최근 휩싸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앞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모습이 중국 매체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키웠다. 17일 위소우광은 SNS를 통해 논란이 된 영상 속 여성이 친한 지인이라면서 "아무리 친해도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데 경솔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사랑만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추)자현씨를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추자현도 이날 "남편이 많이 반성하고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랑종' 4일만에 40만 관객 흥행 질주



영화 '랑종'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기획·제작한 태극영화 '랑종'이 14일 개봉해 상영 4일째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18일 투자배급사 쇼박스에는 '랑종'이 17일 현재까지 40만 관객을 동원해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랑종'의 제작비 규모는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영화는 공포영화 '서터' 등으로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태극의 반종 피산다나로 감독이 연출해 화제를 모았다. '랑종'은 '무당'을 뜻하는 말로, 영화는 신 내림이 대물림되는 태극 산골마을의 한 무당 가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와셋 출신 지애, 양성애자 고백 화제



지애

걸그룹 와셋 출신 지애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애가 1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양성애자임을 밝힌 게시물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겨 행복하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지애는 "어렵고 힘들고 다사다난하고"라면서 성소수자로서 겪는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애가 소속된 와셋은 2013년 데뷔한 이후 2017년 진주, 나다, 다인이 탈퇴하고 4인조로 개편됐다. 이후 2019년 2월 해체됐다.

액션히어로 4관왕...부천판타스틱영화제 폐막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18일 막을 내렸다. 47개국 258편의 장단편영화를 선보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폐막과 함께 경쟁부문인 '코리아 판타스틱: 장편' 시상식을 통해 이진호 감독의 '액션히어로'에 작품·배우·CGV 배급지원·왓차가 주목한 장편상 등 4관왕을 안겼다. 국제경쟁부문인 '부천초이스' 단편경쟁부문에서는 테오 리스 감독의 '박제'가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됐다. 개막일인 8일부터 15일까지 부천지역 극장에서, 18일까지는 OTT 웨이브에서 각각 초청작을 상영했다.

'코로나 시한폭탄' 연예계 섰다운 위기

김요한·한혜진·장민호 잇단 확진
접지기 출연도 많아 확산 우려감
방송인 광경은 "마스크 착용해야"
나훈아, 콘서트 강행 논란 중심에

뿐다', 한혜진·김요한이 진행하는 iHQ '리더의 연예', 장민호가 출연한 TV조선 '뽕송아학당' 등 적지 않은 프로그램의 다른 출연자와 제작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연예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더 빠르고 강하게 전파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서 방송가를 누비는 스타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가요계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이 잇따라 취소·연기되면서 자칫 '섰다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시한폭탄' 터질까

18일 현재 모델 한혜진, 트로트 가수 장민호, 그룹 비투비의 이민혁과 트레저의 소정환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스포츠스타 박태환·이형택·모태범·윤동식·김요한 등 JTBC '몽쳐야 뜬다!' 출연진도 집단감염됐다. 이에 박태환 등이 최근 촬영한 '몽쳐야

이르기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녹화 현장에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콘서트도 취소·연기 가능성
가요계 역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6월 중순부터 대중음악 실내 공연장에 최대 4000명의 관객을 들일 수 있게 되면서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는 듯했지만, 7월 12·12명 이후 17일까지 1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일부 가수들의 잇단 확진 판정에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강행하기로 했던 공연 일정도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한혜진 장민호

이런 위기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녹화 현장에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콘서트도 취소·연기 가능성

가요계 역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6월 중순부터 대중음악 실내 공연장에 최대 4000명의 관객을 들일 수 있게 되면서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는 듯했지만, 7월 12·12명 이후 17일까지 1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일부 가수들의 잇단 확진 판정에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강행하기로 했던 공연 일정도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는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기장 등에서 열리는 공연은 모두 금지됐다.

이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는 25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기로 했던 팬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CG CGV 생중계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룹 세븐틴도 다음 달 팬미팅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남진도 24일 서울 KBS아레나 단독콘서트를 취소했다. 하성운과 '내일은 미스트롯?' 등 콘서트도 연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훈아가 지난 주말 대구에서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불러 모았다. 나훈아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나훈아 어게인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루 2회씩 총 6회로, 회당 관객은 4000명에 달했다.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어서 회당 최대 관객 5000명 이내 공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비수도권에서도 거세진 상황에서 각종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나훈아 측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훈아는 23~2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도 같은 규모의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올 가을, '영웅 시대' 열린다

9월12일 뉴에라프로젝트와 전속 끝
TV조선 외 타방송도 자유롭게 출연
CJ측과의 100억 규모 공연 계획도

9월12일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미스터트롯' 출신 임영웅을 비롯해 이찬원·영탁 등 '톱6'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다. 임영웅은 이후 원 소속사인 물고기컴퍼니로 복귀해 다채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영웅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올해 가을 본격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칠 기회를 맞는다. 지난해 1월 TV조선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통해 데뷔한 뒤 매니지먼트 위탁 관리를 맡아온 뉴에라프로젝트와

이에 따라 방송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임영웅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방송가에서는 임영웅에 대한 러브콜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도 흘러나



임영웅

오고 있다. 실제로 18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은 CJ ENM과 '100억 원' 규모의 공연 제안을 받고 가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100억 계약설'이 불거졌다가 이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면서 "감염병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초 위탁 관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논의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로트 열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조금 시들해졌지만 '임영웅 효과'가 여전히 거세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송가에서 임영웅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현재 '뽕송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TV조선 프로그램에만 출연 중인 그는 9월 이후부터는 다른 방송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방송가에서는 경쟁 방송사의 오디션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의 출연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임영웅은 이로써 한정된 방송사의 프로그램 출연 한계를 벗어나 경쟁 방송사의 예능·음악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시청자와 만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